

이주열 “통화정책, 경기회복에 중점”

한은 창립66주년 기념식서 “통화·재정 정책 완화적 운영과 함께 구조개혁 일관성 있게” 강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결정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재정정책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을 국내 경기 회복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은 창립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없이는 거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채 정책역량만 소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발표된 자본확충펀드 방안에 대해 말하면서도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적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은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은행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상황 악화와 국내 경제의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침체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이르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동원했지만 장기 저성장 우려가 있다”며 “미국 경제도 고용의 개선 추세가 주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 이 총재는 “국내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기조가 완화된 만큼 가계부채의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올해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해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난 뒤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이 2018년까지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에서 2월 1.3%로 올랐다. 3월과 4월은 모두 1.0%, 5월 0.8%로 집계됐다. 이반달 수치가 1.5%를 밑돌면 6개월 연속 목표치를 0.5%포인트 이상 하회했기 때문에 한은은 물가 설명회를 피할 수 없다. /안진수 기자

보금자리론 금리 0.2%p 인하

주택금융공사, 16일부터 시행... 최저 2.38%

주택금융공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주머니 앱을 활용하면 최저 2.38%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은행방문 필요없이 인

터넷을 통해 전자약정을 맺어 0.1%p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상품으로 현재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i-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플러스 보금자리론’은 연 2.50%(10년)~2.75%(30년)가 적용된다. /안진수 기자

현대·기아차, 5월 프랑스 판매 급증... “SUV가 효자”

현대·기아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프랑스 시장에서 완성차그룹 판매량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0일 코트라,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5월 프랑스 판매량이 5464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했다.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성장률(22.3%)보다 2배 높은 수치다.

현대차가 2391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57.7% 증가했다. 이는 신형 투싼 II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도 지난해 41.2% 증가한 3073

대를 판매했다. 역시 SUV 차량인 스포티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36%, 1.75%에 달해, 현대·기아차는 3.1%를 웃돌았다.

지난달 프랑스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영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22.3% 증가한 17만5834대로 잠정 집계됐다.

완성차 그룹별 판매 증감율은 현대·기아차에 이어 르노 그룹(34%), FCA 그룹(28.2%), PSA그룹(25.6%), 도요타 그룹(25%), BMW 그룹(24.3%) 등이었고, 포드차는 유일하게 1.3% 감소했다. /안진수 기자

임종룡 “보험업 IFRS4 2단계 확정시 제도개선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 및 세부 도입방법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종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시가평가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단 장기로 운영되는

보험상품의 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누적 영향이 일시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IASB 논의동향, 각 국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적극 협조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은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FRS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보험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유용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준비와는 별도로 지급역량비율(RBC),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등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

‘대기업 해제’ 카카오, 인터넷은행 출범 가속

“신규 모바일 사업, 스타트업 제휴와 인수합병에 속도 낼 것”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가칭) 출범에 속도를 내게 됐다.

모바일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각종 사업 규제가 부여돼 카카오는 큰 부담을 느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은행 자본 참여에도 각종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건을 10조원으로 높이면서 카카오는 숨통을 트게 됐다.

카카오는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돼 환영”이라며 “관계사 대부분이 중소

기업 또는 IT 스타트업인데 이번 결정이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지정되면 계열사간 이유로 벤처 캐피탈의 모든 투자가 금지되거나 국가발주 소프트웨어, e-러닝, 지능형 로봇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며 “이번 지정 해제로 카카오는 추진하는 신규 모바일 사업, 스타트업 제휴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해제를 가장 반기는 분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는 ‘케이뱅크’ (가칭)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 그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제한이 생긴다.

케이뱅크의 준비법인 (주)한국카카오의 대주주는 지분 50%를 지닌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카카오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IT기업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두 개가 상정됐는데 각

각 대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반대 의견에 부딪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가칭)를 준비하는 KT그룹은 오래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카카오는 연초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참여가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나가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상당한 변수가 된다”며 “이번 대기업 해제로 신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안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